

# 주간 테러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7.5(금)

## 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

### 유럽

- 佛, 유력 총리 후보가 反이민·反무슬림정책 선언
  - 6.27 프랑스 유력 총리 후보 「조르당 바르텔라」 프랑스 국민연합 대표는 이슬람 극단주의 인물 추방 및 사원 폐쇄, 히잡 금지 등 이슬람 이민사회를 겨냥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
- 독일, 자국민에 신속히 레바논을 떠나라고 촉구
  - 6.27 독일 정부는 자국민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폭력 사태가 고조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히 레바논을 떠나라고 촉구했으며, 獨 외교부 장관은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양측의 자제를 촉구
    - ※ 언론은 최근 이스라엘-헤즈볼라 사이의 총격전이 더욱 커지고 잦아지고 있다고 부언

### 미주

- 美, 중국 사이버 공격에 대해 경고
  - 6.26 「티머시 호크」 美 국가안보국(NSA) 국장은 중국이 많은 인력을 동원해 미국의 방위 산업을 교란하고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있다며, 이에 대항하기 위해 사이버 사령부 內 AI TF팀을 신설한다고 발표
    - ※ 유럽사이버사고 저장소의 조사결과 '00~'23년 사이버 공격의 배후국가로 중국(11.9%), 러시아(11.6%), 이란(5.3%), 북한(4.7%) 등을 지목
- 美, 유럽내 일부 미군기지 테러대비 경계태세 상황
  - 7.1 외신은 미군 유럽사령부 본부가 위치한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육군 주둔지를 포함한 유럽 內 일부 미군기지들이 테러 위협 증가로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보다 한 단계 낮은 '찰리\*'로 올렸다고 보도
    - \* 테러 등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인력·시설을 목표로 한 테러 행위가 예상된다는 첩보가 입수될 때 발령되며 적극적이고 신뢰할 만한 위협을 받았다는 의미

## 아 . 태평양

- 호주, 국회의원 사무실 무장 공격 시도한 10대 기소
  - 6.27 언론은 호주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칼과 전술장비로 무장한 채 접근한 10대가 테러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보도했으며, 해당 의원실에는 용의자가 겁을 먹고 물러나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발표
    - ※ 언론은 용의자가 언론과 온라인에 배포한 선언문의 내용으로 보아 극단주의 성향을 가졌으며, '19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테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언
- 태국, 이슬람 무장단체 소행 추정 자동차 폭탄테러 발생
  - 7.1 언론은 지난달 30일 태국 남부 얄라주 반낭사타 지역에 주차된 자동차에서 폭탄이 폭발해 1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으며, 同 테러의 배후는 강성 이슬람 무장단체로 추정된다고 보도
- 파키스탄, 교도소에서 테러리스트 포함 20명 집단 탈옥
  - 7.1 언론은 파키스탄 북동부에 위치한 지역 교도소에서 테러단체 조직원 수감자를 포함한 20명이 집단 탈옥을 하여, 현재 교정당국과 현지경찰은 탈옥수 1명을 사살하고 19명은 수색 작전을 지속 수행중이라고 보도
    - ※ 파키스탄 교도소는 과밀 수용, 열악한 환경, 부패 인권침해 등으로 악명이 높으며, 지난 '12년 카이버팍툰과주에서 재소자 400명 가량이 탈옥한 사례가 있음

## 아프리카

- 나이지리아, 자살 폭탄테러로 수십 명 사상
  - 6.29 언론은 나이지리아 보르노주 소재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에서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해 18명이 사망하고 4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, 이번 공격은 여성 용의자들에 의한 자살폭탄 테러라고 보도
    - ※ 언론은 同 테러의 배후는 불명이나 보코하람으로 추정된다고 보도

역사 속 테러사건 Weekly Terrorism Trends

佛 니스, 해변가 차량돌진테러 (Vehicle Ramming Attack)

- '16.7.14. 22:30경 프랑스 니스(Nice)에서 테러범이 '바스티유의 날'\* 축제에 참석한 군중을 향해 대형 트럭으로 돌진하여 86명 사망, 100여명 부상
    - \* 프랑스 혁명(1789.7.14.)의 발단이 된 바스티유 감옥 습격을 기념하는 최대 국경일
  - 용의자 「모하메드 라후에유 부렐」(31세, 남)\*는 “Allahu Akbar”(알라하는 위대하다)를 외치며 약 1.8km를 질주한 후 경찰의 총격에 사망
    - \* '05년 튀니지에서 프랑스로 이주한 튀니지계 프랑스인, 니스에서 배송트럭 운전사로 근무
    - 한편, ISIS는 온라인 선전 매체를 통해 니스 테러의 배후 자처(7.16)
  - 특히, 同 테러는 공항·경기장 등 군중이 운집한 실내에서 발생하던 기존의 소프트 타킷 테러에서 벗어나, 개방된 해변가에서 트럭이라는 Low-Tech수단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테러유형으로 평가
- ⇒ 여름 휴가철 및 파리 올림픽 등 국내외 야외 행사 증가로 다수 운집이 예상되는 장소 대상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동향 주시

테러 상식 Weekly Terrorism Trends

**< 차량 돌진 테러 (Vehicle Ramming Attack) >**

- (정의) 차량을 시설물이나 사람들을 향해 주행하여 살상하는 테러 유형
  - ※ 차량 자체를 무기로 이용한다는 점에서, 차량을 폭발시키는 '차량 폭탄테러'(Car Bomb)와 구별
- (특징) △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△도구(차량)를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△목표물에 접근이 용이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, 사전 준비기간이나 차량 이외의 유형적 준비가 필요없다는 점에서 최근 관련 테러가 급증
- (사례) △'16.7.14 佛 니스 차량테러, △'16.12.20 獨 베를린 크리스마스마켓 차량테러, △'17.3.22 英 런던 브릿지 차량테러, △'17.4.7 스웨덴 스톡홀름 차량테러, △'17.8.17 스페인 바르셀로나 차량테러, △'17.11.1 美 뉴욕 맨하튼 차량테러
- (대책) 볼라드·로드블럭 등 장애물 설치, 트럭에 자동제동장치(AEBS) 설치 의무화, 특정 지역 접근을 막는 Geo-fencing 도입, 차량 접근속도를 줄이는 진입로 설계 등